

“깨달음은 평화실현의 출발점”

하와이 대원사 주최 제7회 국제불교학술대회



◇ 하와이 대원사 창건 20주년을 기념해 불교와 평화를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7개국 32명의 학자들이 진지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개인의 평화·우주의 공존

“개인의 평화”에 대한 제1분과의 첫 발표자로 나선 정병조교수(동국대)는 “관용의 원리로써의 불교”란 논문을 내었다. 정교수는 이 논문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 상호간의 평화로운 공존은 현실적으로 왜 깨어지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졌다. 이에 대한 정교수의 원인 분석은 3가지로 요약했다. 즉 경제적 불평등, 윤리적 파탄, 이기적 심성이 그것. 정교수는 “이 세 원인의 극복은 인간의 내면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며 불교가 제시하는 무명(無明)의 극복 논리를 현재에 실현시키는 것이 그릇된 편견을 버리는 지름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래적 자아, 근원적 심성의 회복으로 인간과 우주의 평화로운 질서가 유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교수의 주장.

이에 대해 논평자인 데이비드 퍼트리코 교수(미국 버지니아 올드 도미니언대학)는 “정교수의 논문은 플라톤이나 아우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한 서양철학적 입장에서 매우 타당한 논리전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보다 불교적이고 동양철학적인 입장에서의 조명이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발표한 로버트 조이슈너교수(미국 캘리포니아 파사데나 시티대학)는 육조만 년과 중국선종의 역사에 있어서 “신화”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조이슈너 교수는 “신화에 대한 평가는 남종에 의한 일방적인 것에 치우치고 있다”며 북종과 남종의 차이를 “돈오돈수”라는 수행의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장로불교와 대승불교의 전통이 갖는 연결성을 도출해 내며 그를 통한

하와이 대원사(주지·대원)가 주최한 제7차 국제불교학술대회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하와이대 제퍼슨 홀에서 열렸다. (32호 참조)

“불교와 평화, 그 이론과 실천”을 주제로 7개국 32명의 불교학자가 참가한 가운데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된 본회의에서 평화실현을 위한 불교적 과제가 다양하게 제시됐다.

“현대사회 제문제 상업주의서 비롯” 지적 장로·대승불교전통 조화로운 공존 모색

평화실현의 전형을 밝히는 데 포커스가 맞춰진 논문들이 발표됐다.

갈등해소의 사회정의

“사회갈등의 해소방안”을 주제로한 제2분과에서는 인간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경전적 전거를 찾으려는 노력과 불교의 윤리와 교리적 바탕을 밝히려는 학자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관심을 모은 학자는 채재교수와 번드교수였다.

데이비드 채재교수(미국 하와이대)는 “대승불교의 이상이 사회정의의 위해 매우 합당한 것이지만 실제로 대승불교권의 국가들이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 상황 설명에 이어 “대승불교를 지향하는 국가에서의 불교가 확실한 실천 논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또 조지 번드교수(미국 노스웨스턴대학)는 사회정의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평화”란 점을 부각 시키며 수행의 중요성과 사회적 확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박성배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성철 스님으로 대표되는 “안심입명파”와 현실 참여 승려들의 “사회참여불교”를 다뤄 눈길을 모았다. 박교수는 산중 수행을 철저히 하는 안심입명파나 현실참여에 앞장서는 민중불교론자는 “다를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그들 모두가 인간과 사회구원의 실천자들이란 이유에서다.

불교는 환경보존종교

“환경문제의 불교적 극복 방안”을 모색한 제3분과는 불교는 철저한 환경옹호의 종교란 점을 재확인 했다. 이 분과에서도 환경문제와 관련 경전적 전거를 밝히는 것과 현실적인 실천방향의 설정이 가장

큰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탐진치 3쪽의 제어가 환경오염의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기도 한 제3분과에서는 태국의 사파 아난드교수(방콕 슈이롱콘대)와 심재홍(서울대)교수의 논문이 주목 받았다. 아난드교수는 “현대 사회의 제문제는 바로 상업주의에서 비롯된다”며 그에대한 극복 논리는 없으므로 따질 수 없는 불교의 가르침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홍교수는 불교와 자연환경의 공존을 한국에서의 사례들을 통해 보고했다. 고려말 도선국사의 풍수지리에 대한 사상과 80년대 정부의 개발정책에 따른 송광사 앞의 주암댐 건설에 대한 송광사측의 반대운동 등을 통해 심교수는 한국의 사찰은 자연생태계와 융화된 수행도량임을 강조했다.

건강한 정신 깨달음 요체

건강문제를 주로 다룬 제4분과에서는 불교의 지고한 정신세계야말로 “완벽한 인간의 추구”이므로 절대건강의 인격 추구는 개인과 인류의 건강으로 통한다는 논지가 핵심을 이루었다. 이 분과에는 하와이대의 폰스, 캐나다의 가와무라, 필리핀의 판가이교수 등이 참여했다.

또한 “동아시아의 불교”를 중심으로 발표한 학자들은 개인의 깨달음과 인간 사회의 포괄적 깨달음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허우성교수(경희대)는 이 주제와 관련 성철스님과 만해 스님에 대한 관점을 “아라한”과 “보살”의 개념으로 파악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산중 수행을 통해 독목을 이룬 성철스님이 아라한의 경지라면 증생 속에 뛰어든것

학술

니가다 木柱는 한국 장승 보광스님 인·불학술대회서 밝혀

일본 인도학불교학회(마에다 회장)의 제46회 학술대회가 지난 10일부터 11일 양일에 걸쳐 교토시의 하나조노(花園) 대학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8개의 학부로 나뉘진 250건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 중에는 ‘정법안장의 데 이터베이스화’ ‘팔리어문헌의 컴퓨터처리’ 등 불교연구의 새로운 동향을 반영한 주제발표도 눈에 띄었다. (사진)

또한 개최된 9일에는 학회내의 컴퓨터이용 위원회가 열려 ‘대정신수대장경’의 CD롬이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됐다. 한국에서는 동국대학교의 보광스님과 허일범 교수가 참가했다.

보광스님은 ‘아미산의 목주와 한국의 장승에 대해서’라는 논문을 통해 1825년 일본 니가다지방에서 발견된 목주



(木柱)는 ‘아미산하고’라고 새겨져 있지만 이제까지의 주장대로 중국사천성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강원도 지방에서 떠내려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광스님은 이 근거로 중국 사천성에서 떠내려간 목주는 해류의 흐름상 일본으로 유입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180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천연두가 창궐해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아미산 보현보살이 병을 낫게 해준다는 신앙이 급속도로 확산됐음을 상기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미산하고’라는 문구를 새운 장승이 마을 입구에 유행처럼 세워졌고 1824년에는 전국에 큰 흉수가 났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불교연구 歐美서 활발” 국학연 연구발표회

유럽과 미국에서의 한국학 및 불교학 연구현황을 소개한 연구발표회가 지난 12일 연세대 국학연구원에서 열린 세계화 시대의 불교학 등 국학의 과제를 조망하는 기회를 가졌다.

美 버클리대 이흥영교수(한국학연구소장)는 “미국의 한국학 연구현황”이란 발표문을 통해 “미국내 한국학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인종과 교재가 없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내에서도 세계화에 발맞추어 한국 문화와 학술을 통해 세계 시장에 공헌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한국학회(AKSE)를 통해 본 국학 연구현황”을 발표한 연세대 설성경교수는 지난 4월21일부터 25일까지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제17차 대회를 연 유럽한국학회를 중심으로 유럽내 한국학의 연구현황을 소개했다.

하와이/임연태 기자



기조연설한 고령의 불교학자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

불교학의 거두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박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첫날 기조연설을 한 후에도 마지막 날까지 각국의 학자들이 내놓는 의견을 청취하는 진지함을 보였다. 그는 올해 83세로 해외 여행을 자제하고 있었지만 이번 대회만큼은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에 하와이까지 왔으며 “불교학의 확대는 인류 구원의 모순”이라고 말했다.

(초기 배단탈학사)(전4권) (인도사상사) 등 인도불교학의 시일을 개척한 중요저서를 비롯 1백권 이상의 논집을 내놓은 나카무라 박사는 대학 강단에서 은퇴한 이후 더욱 왕성한 연구와 집필로 후학들의 모범이 되고 있기도 하다.

나카무라박사는 “세계는 평화를 회구하고 있으며 모든 정치 경제가 인류공존의 바탕으로 흐르고 있는 시점에서 불교정신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불교야말

신종종교 폐단 기성종교 반성해야

로 인간의 참모습을 밝혀내는 보편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카무라 박사는 “깨달음은 언어의 영역을 초월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절대자유에 이르는 길”임을 강조했다.

고준한 그의 명성 뒤에는 “나는 요즘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다”는 학자적 자세가 있다. 나카무라 박사는 “경전의 대중화가 가장 우선적인 불교의 전파 방법”이라며 보다 다양한 언어로 경전이 번역되고 보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종교의 폐단에 대해서는 “기초의 종교가 제 역할을 못한 탓”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불교학에 뛰어든 많은 학자들을 향해 “앞선 학자들의 장점과 오류를 분명히 파악해 보다 바른 학문의 영역을 개척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태)

韓國佛教美術大典

우리 민족과 한국미술의 자존심을 이 책으로 살렸다!!

대한민국 제38회 출판문화상에 빛나는 「한국불교미술대전」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및 일본 경도대학 부설 불교미술 연구소에서 우리문화의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한국 불교미술 집대성.
- 팔만대장경 이래 한국불교문화사 최대의 불사.
-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 불교미술.
- 국문판에 이어 일어판, 영문판도 곧 이어 발간.
- 한국출판사상 보기도문 대기책에 최고급 인쇄.

- 8월판(26.5×36cm)의 초대형크기
- 각권 312~376페이지의 울컬러 인쇄
- 본문 180g의 스노우화이트지 사용
- 호화양장제본에 날것케이스, 금박 포클로스
- 정가 630,000원(전7권)

韓國佛教美術大典 重要내용

- ① 佛教彫刻: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불교조각사와 함께 컬러도판을 실고 도판해설을 하였다.
- ② 佛教繪畵: 한국불교회화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컬러도판과 함께 도판해설을 실어 이해를 도왔다.
- ③ 佛教建築: 사찰의 건축과 함께 불탑, 부도, 불비 등 불교건축을 논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 ④ 佛教工藝: 불교의 공양구, 의식구, 사리구, 기와 등의 불교공예품을 서술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 ⑤ 現代佛教美術: 오늘날에 제작된 대표적 불교미술품을 게재하고 대표적인 불교미술가를 작품과 함께 소개하였다.
- ⑥ 世界의 佛教美術: 우리나라와 함께 불교미술이 발달된 인도, 중국, 일본, 몽고, 동남아 제국의 불교미술의 컬러도판으로 소개하였다.
- ⑦ 佛教美術資料集: 불교미술에 필수적인 불교미술용어사전과 함께 불교미술품의 실측도와 각종 문양을 실었다.

현대불교 구독자 사은행사로 선착순 100명에 한하여 전권 630,000원을 490,000원에 현금 및 할인 분할해 드립니다. 법보시용으로 최적입니다.

주문처: 현대불교신문사 사업부 TEL: (02)737-0695 FAX: (02)737-0696
 공급처: (주) 한국색채문화사 TEL: (02) 333-0051 FAX: (02) 338-7781